

보도시점: 2026. 9. 9.(수) 배포 즉시

배포: 2026. 9. 9.(수)

“새만금, 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”

- 새만금 유관기관 17곳 한자리에... 주요 현안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-

□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)은 9월 9일 새만금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앙·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‘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은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, 올해는 17개 기관*에서 약 15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.

* 새만금개발청, 국무조정실, 국토교통부, 산림청, 전북지방환경청, 군산지방해양수산청, 전북특별자치도, 군산시, 김제시, 부안군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새만금개발공사, 전북개발공사, 새만금간척박물관,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

□ 워크숍에서는 새만금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기관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,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.

○ ▲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향, ▲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·인공지능(AI)·수소 프로젝트, ▲새만금 전력설비 확충 계획, ▲새만금호 수질관리 대책, ▲제2산단 조성계획 등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.

○ 참석자들은 투자 유치부터 기반시설 구축, 기업 지원, 정주여건 조성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,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.

- 또한 새만금 로봇·인공지능(AI)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류요엘 실증기술연구팀장이 ‘인간, 로봇, 더 나은 미래’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.
 - 특강에서는 로봇 산업 관련 국내 정책 동향과 실증사례,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.
 - 특히 새만금이 로봇·인공지능(AI) 등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산업환경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.
-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“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”면서, “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달라”고 말했다.
- 새만금개발청 남영우 차장은 “새만금을 ‘지방 주도 성장’의 대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”이라고 강조하며,
 - “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고,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장창석	(063-733-1120)
		담당자	사무관	우정민	(063-733-1127)
			주무관	송은주	(063-733-1128)